

【서평】

## 냉전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

- Odd Arne Westad and Melvyn P. Leffl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 II, I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노경덕(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 I.

냉전사(Cold War History)라고 불리는 용어가 서양, 특히 영미권의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이십년 전의 일이다. 이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냉전사 연구는 현재 서양 학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축적된 성과도 적지 않다. 냉전사 연구가 기존의 보다 일반적인 의미의 냉전 연구(Cold War Studies)와 구별되는 점은 세계 제2차 대전 전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기까지의 냉전 시대 전체를 하나의 완결적인 역사적 시기(era)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냉전사 연구는 첫째,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초강대국 간의 외교 관계에만 착목하지 않고, 냉전 시기의 보다 다양한 분야들과 주제들, 즉 세계경제, 사회상, 예술, 대중문화 그리고 일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두 번째로, 기존 냉전 연구가 사실상 양대 초강대국만의 대

외 정책 연구였던 데에 비해, 새로운 냉전사 연구는 냉전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던 여타 국가들의 상황과 그들이 이 거대한 국제정치의 흐름에 끼쳤던 영향에 관심을 기울인다.

노르웨이 출신으로 주로 영미권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장 학자 오드 아르네 웨스타드(Odd Arne Westad)와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사가 중 하나인 버지니아 대학의 멜빈 레플러(Melvyn P. Leffler)가 편집한 『캠브리지 냉전사』는 바로 이러한 냉전사 연구 성과의 반영이자 표현이라 할 만한 작업이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총 75명의 저자가 참여하여 총 72편의 개별 논문들을 수록하고, 그 총합이 2,000페이지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작업으로, 기원(Origins), 위기와 데탕트(Crises and Détente), 그리고 결말(Endings)이라는 세 권의 책으로 나뉘어 출판되었다. 첫 번째 분책인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62년 쿠바 위기 이전까지의 초기 냉전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기원’이라는 제목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두 번째 분책은 쿠바 ‘위기’를 비롯한 1960년대의 다양한 위기들로부터 1970년대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로 이어지는 시기를, 마지막은 1980년대 이후 냉전의 전개와 1989년의 그 ‘결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냉전 시기를 벗어난다고도 할 수 있는 소련방의 해체와 그 직후까지를 다루었다.

편집자인 웨스타드와 레플러는 그들을 포함하여 75명이라는 많은 수의 학자들이 참여한 이 거대한 작업을 기존의 일반적 캠브리지 역사 시리즈와는 다른 방법으로 기획하였다. 즉, 기존 캠브리지 역사 시리즈가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 또는 대가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이들을 필자진으로 구성한 후 비교적 큰 주제와 장기적인 시기를 포괄하는 긴 논문들로 주로 구성되었던 데 비해, 『캠브리지 냉전사』는 필자진에 위와 같은 대가들에 더해서 젊은 소장 학자들도 다수를 포함시키고, 그들에게 맡길 주제와 시기를 더 잘게 나누었다. 그 결과 개설적인 지식과 더불어,

특정 시대나 주제를 통찰하는 거대한 해석이 포함된 긴 논문들의 집합이었던 기존 여러 캠브리지 역사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캠브리지 역사가 탄생하였다. 『캠브리지 냉전사』에서 저자들은 모두, 각국사(national histories)로 또는 사건별로 세분화된 주제를 20페이지 내외의 짤막한 글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다루면서 이에 자신들의 관점을 투영하였다.

## II.

이 거대한 숫자의 저자들을 모아놓고 편집자인 오드 아르네 웨스타드와 멜빈 레플러가 내세운 『캠브리지 냉전사』의 조직 원칙은, 어찌 보면 놀랍지 않고 당연하게도, 다양성과 차이의 강조였다. 본서는 어떠한 통일된 시각과 관점을 보여주려고 기획된 집단적 시도는 아니며, 그런 만큼 기존 냉전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대신, 본서의 편집자들은 냉전의 주요 주제들을 세분하고 이들을 저자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학파와는 관계없이 각 주제의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로이 개진하기는 하지만 논쟁적인 어조는 최대한 삼갔으며, 특히, 기존 연구사 정리와 이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방법을 통해, 냉전 연구의 고전적인 논쟁이었던 소위 정통주의, 수정주의 그리고 후기수정주의 간의 논쟁을 다시 들추어 내지 않았다. 그리고 편집자들은 냉전 연구에 가장 논쟁적인 저자들일 수 있는 수정주의 계열 학자들을, 냉전 후기 일본을 담당했던 마이클 샬러(Michael Schaller)만을 예외로 하고, 전면적으로 필자진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편집자들이 본서를 기존 연구자들 간의 논쟁의 장으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향후 논쟁을 위한 시발점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본서는 편집자들에 의해,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왔던 새로운 냉전사 연구의 보고이자, 냉전 시대 연구를 막 시작하려는 학자들이나 현대사 또는 국제관계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입문서 또는 레퍼런스로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아직 새로운 냉전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국내 학계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서가 가지는 효용성은 서양 학계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다고도 할 수 있겠다.

본서가 논쟁적인 색깔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해서, 여기에 속한 개별 논문들이 기존의 여러 관점을 모두 수용하는 중재적인 스타일의 글로 집필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편집자들의 의도 중 하나는 본서에서 냉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캠브리지 냉전사』는 각 입장들의 절충이 아니라, 여러 상이한 견해들의 집합을 의도했던 것이며, 이것이 바로 편집자들이 본서의 서두(preface)에서 말하는 냉전에 대한 “다원적(pluralist)” 접근법과 해석의 의미였다.

이런 다양성과 차이라는 키워드는 『캠브리지 냉전사』의 전3권을 통해서 분명하게 독자에게 전달된다. 어떤 저자들은 냉전의 기원과 전개 그리고 결말에 이데올로기 영역의 영향력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또 다른 저자들은 현실 정치와 국제정치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지어 이데올로기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자들 사이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일부는 이 영역에 미국의 자유주의와 개방경제주의, 그리고 소련의 맑스-레닌주의와 반식민주의 같은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만을 포함시키는데 비해, 또 다른 저자들은 당시 미국과 소련의 국가 문화까지 주목한다. 데이비드 엥거만(David C. Engerman)은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그는 양국의 정치경제 이데올로기가 모두 보편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충돌할 운명에 처해 있었고, 이런 차이는 이미 냉전이 시작되기 오래전, 즉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 시점부터 출발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인 예인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 영역을 확장시켜, 정체성(identity), 즉 그가 보기에 특정 국가를 다른 국가들과 구분하게 만드는 “가치들, 특성들 그리고 관행들”이 냉전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실 정치와 국제정치 상황을 중시하는 입장 내에서도 관점의 차이는 뚜렷이 보인다. 마크 트라흐텐버그(Marc Trakhtenberg)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미소간의 냉전 전개 양상을 순수한 힘의 정치의 결과 파악하는 데 비해, 블라디미르 페차트노프(Vladimir O. Pechatnov), 그리고 레플러와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거대 전략(grand strategy)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냉전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하려 하였다. 흥미롭게도 심지어 이들 거대 전략론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입장 차가 목격된다. 레플러가 거대 전략을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정학적 및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보다 현실 정치론자들의 입장과 가까웠다면, 페차트노프와 개디스는 미국과 소련 정책입안자들의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그들의 거대 전략 개념의 주요 요소로 삼입시킴으로써 순수 현실 정치론과는 거리를 두었다.

『캠브리지 냉전사』를 이루는 세 권의 책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냉전의 기원, 데탕트, 그리고 냉전의 종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들에서도 여러 저자들 간에 차이가 노정되어 있다. 데이비드 엥거만이 미국의 자유주의와 소련의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메시아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양대 강대국의 정책 모두를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한 반면, 레플러와 페차트노프는 각기 트루만 정부에서 확립된 미국의 “적극적”인 거대 전략과 스탈린의 수비적인 대응에 강조점을 두었다. 데탕트의 기원 부문에 관해서, 프랭크 코스티글리오아(Frank Costigliola)는 미국과 소련 정치가들의 이니셔티브를, 반대로 제레미 수리(Jeremy Suri)의 경우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반문화 운동(counter-cultures)의 중

요성, 즉 국내 상황이 국제정치 입안자들에 끼쳤던 영향을 강조하였다. 데탕트를 평가할 때에도, 저자들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는 계속 확인된다. 일례로, 마크 트라흐텐버그는 데탕트를 미소가 파워 게임 도중 취했던 일종의 제스처(charade)였다고 파악한 데 비해, 개디스 같은 경우는 데탕트가 그들 간의 전략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성립한 진정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해석의 다원성이라는 『캠브리지 냉전사』의 특징은 냉전의 결말과 관련해서도 드러난다. 대다수의 저자들의 레이건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 주도론을 거부하고 소련 “책임론”에 주목하는 데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세부 설명에서는 그들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냉전 종식에 대한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의 역할을 “부차적인 것(secondary)”으로 표현하면서, 고르바초프가 취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베스 피셔(Beth Fischer)처럼, 소련 전문가들인 블라디미르 주복(Vladimir Zubok)과 아치브라운(Archie Brown)은 소연방 서기장의 정치적인 역할을 결정적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다른 저자들은 냉전 종식에 보다 구조적인 문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지오바니 아리기(Giovanni Arrighi)는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던 소위 “신자유주의 혁명(neoliberal revolution)”이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 혁명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원자재 수입을 줄이고 금리를 올렸던 점이 1970년대 이후 서방 경제와의 관련성이 커지고 있던 소련과 제2세계 국가들에게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냉전의 종말에 배경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레이놀즈(David Reynolds)도 소련이 정보 통제 기술에서 미국에 뒤질 수밖에 없는 경직된 과학기술 체제를 가졌던 점을 냉전 종말과 소련 붕괴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관점이나 입장의 차이와 다양성이 『캠브리지 냉전사』라는 하

나의 기획에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본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은 단지 해석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방법론, 자료 이용의 범위와 깊이 그리고 문체상에서도 상이함을 드러내면서 논문집으로서의 기본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깨뜨리고 있다. 더 간단히 표현하면, 『캠브리지 냉전사』의 논문들 사이에는 연구 수준과 집필 스타일의 차이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노먼 나이마크(Norman Naimark)의 동유럽 소비에트화 관련된 논문은, 구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 문서고 자료까지 두루 분석하고 그간 이 주제와 관련해 출판되었던 수많은 제2차 문헌들을 소화한 매우 구체적인 연구 논문(research paper)이었던 반면에, 역시 동유럽과 소련방 문제를 다룬 보즈텍 마츠니(Vojtech Mastny)의 논문은 저자의 독특한 소련 체제와 소련 정치인들의 심성 이해에 기초하여 주관적인 해석들을 개진하는 에세이였다. 이런 연구 수준과 집필 방식상의 상이함은 특히 경제사 논문들에서 더 두드러진다. 찰스 마이어(Charles Maier)와 빌프리트 로트(Wilfried Loth)의 논문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老대가들 통찰력에 더 의존하는 거대한 해석 논문(interpretative essay)이었다면, 데이비드 페인터(David S. Painter)와 리처드 쿠퍼(Richard N. Cooper)의 논문은 세부적인 통계를 기초로 “작은” 주장들을 증명하려는 매우 실증적인 저술들이었다. 이처럼 논문들 간의 수준과 스타일 조율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본서가 목표로 하는 독자층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캠브리지 냉전사』가 가진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로 보인다.

### Ⅲ.

이렇듯 다양성과 차이의 드러내기가 본서의 조직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캠브리지 냉전사』는 그 내부에 두 가지의 커다란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의 냉전 연구 경향, 즉 새로이 냉전사 연구로 불리는 경향과 부합하며, 이는 서두에서 지적했던 냉전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라는 의미와 일치한다. 웨스타드와 레플러가 의도하고 여러 저자들이 합세하고 있는 『캠브리지 냉전사』의 첫 번째 지향점은 냉전 연구를 외교사 중심에서 탈피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캠브리지 냉전사』를 외교 문제들의 좁은 경계를 넘어서 기획하였다. 우리는 냉전시대 동안 제일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을 밝히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냉전의 종말은 시장,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정치적 담론, 외교상의 사건들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 미쳤던 영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파악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20세기의 사회사, 지성사 그리고 경제사를 많은 지면을 통해 다루려 한다. 우리는 인구와 소비, 여성과 청년,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와 인종을 논의할 것이다. 냉전의 진화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Volume I, xv).

실제로 본서에 투고된 많은 논문들이 “외교 문제들의 좁은 경계,” 즉 전통적인 외교사의 주제를 넘어서는 영역을 다루고 있다. 우선, 에밀리 로젠버그(Emily S. Rosenberg)의 소비 자본주의, 수리가 다룬 저항적인 반문화들, 니콜라스 컬(Nicholas Cull)의 언론과 미디어 문제, 레이놀즈의 과학기술 관련 논문처럼 우리가 넓은 의미의 문화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주제들이 포함된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서의 편집자들이 외교사 중심으로부터의 탈피라고 주장했을 때, 그 핵심은



문화보다는 경제 영역과 국내 문제 또는 내정에 대한 강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냉전의 경제사는 세계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해석했던 마이어, 쿠퍼, 아리기의 논문들로부터, 브로델(F. Braudel)류의 장기 지속의 틀로 냉전 시대 경제를 바라본 매튜 코넬리(Matthew Connelly)의 글, 그리고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 문제를 고찰했던 페인터의 논문에 이르기까지, 『캠브리지 냉전사』 전체에서 외교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 영역과 더불어, 비외교사 분야 중에서 본서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된 부분은 냉전 주인공 국가들의 내부 정치 문제였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미국 사회를 냉전과 관련지어 분석했던 로라 맥켄나니(Laura McEnaney)는 전후 미국 사회의 다원주의적 양상이 미국 냉전 정책의 전개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었고, 같은 시기 소련의 내정에 주목했던 데이비드 프리스트랜드(David Priestland)는 소련이 정치보다는 기술 지향적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과 냉전을 연계시켰다. 이외에도 초기 냉전 시대 영국을 다루었던 앤 데이튼(Anne Deighton), 드골주의 정치를 다룬 프레데릭 보조(Frederic Bozo), 주로 이탈리아와 여타 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냉전 시기하의 정치적 변화를 다룬 에니오 디 놀포(Ennio di Nolfo) 그리고 냉전 후기의 일본과 중국을 다루었던 샬러와 첸지안(Chen Jian) 등은 『캠브리지 냉전사』의 편집자들이 냉전의 전개에 내정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들이다.

그러나 편집자들이 내세운 중요 목표였던 외교사로부터의 탈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선, 편집자들이 초대할 필진에는 소위 전통적인 외교사가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편집자 중 하나인 레플러를 비롯하여, 개디스, 저비스, 로버트 맥마혼(Robert J. McMahon), 마즈니, 윌리엄 타우브만(William Taubman), 로트, 샬러 등은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냉전 연구 시대에 외교사가로 활동했던 주역들이며, 로트를 제외한 이들의 모든 논문들이 각국 정부의 공식적 문건과 외

교 관청 관련 기록들을 주된 자료로 이용하는 전통적인 외교사 연구 범위를 명확히 지키는 선에서 저술되었다. 『캠브리지 냉전사』의 총 75명의 저자 중에, 60명이 직간접 의미의 외교사가 또는 국제정치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총 72편의 논문 중 본격적인 외교사로 분류될 수 있는 논문의 수는 56편에 달한다. 물론 로젠버그의 경우처럼 소위 대중적 사료(popular sources)를 큰 비중으로 사용하는 등, 몇몇 개별 논문들에서 외교사의 “좁은” 영역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절대 다수의 외교사 논문들의 경우에는 그들 “본연의” 방법론에 충실하였다.

외교사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 이외에도, 『캠브리지 냉전사』는 “외교 문제들의 좁은 경계”를 넘어서는 주제 분배에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비외교사 분야는 경제와 각국의 내정이 높은 비중으로 처리되었고, 문화의 영역은 그 정도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물론 외교사로 분류될 수 있는 몇몇 논문들에서 근래 문화사의 두드러진 방법론인 언어로의 전환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냉전의 문화사 논문이라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의 수는 제시카 기노프-헤흐트(Jessica C. E. Gienow-Hecht), 켈, 그리고 얀-베르너 뮐러(Jan-Werner Müller)의 논문 세 편뿐이며, 수리나 로젠버그 그리고 레이놀즈의 경우처럼 기존의 외교사가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들 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단 여섯 편에 그쳤다. 게다가 이들 중 대다수 논문들도 냉전 당사국들의 위로부터의 문화 정책을 주로 다루었을 뿐이지, 냉전 시대의 문화가 당시 각국의 민중들에게 실제로 끼쳤던 영향이나 그들의 반응과 같은 문제들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일례로, 켈의 논문은 미국, 소련 그리고 여타 유럽 정부들의 냉전 선전물들과 대중문화에서의 냉전 이미지들을 매우 흥미 있는 방식으로 소개하며 묘사하고 있지만, 이런 산물들이 실제 대중의 의식과 일상에 미친 영향이나 이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

응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 시도도 보여주지 못했다. 다시 말해, 『캠브리지 냉전사』에 속한 문화 관련 논문들은 대체로 외교사가의 입장에서 본 문화 정책사에 머물렀으며, 이들은 현재 서양과 유럽의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전후 고급 및 대중문화의 사회사, 그리고 동독 연구에서 특히 활발한 냉전의 일상사와는 상당한 거리를 보였다.

#### IV.

『캠브리지 냉전사』가 추구했던 두 번째의 공통적인 경향은 냉전 연구를 미국과 소련의 대외 정책이라는 구도, 즉 양대 초강대국 간의 관계사로부터 벗어나 냉전을 “더 큰 역사들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의 가장자리들(edges)로부터” 보려는 것이다. 편집자 중 하나인 웨스타드가 자신의 출세작 『글로벌 냉전』에서 이미 보여준 것처럼,<sup>1)</sup> 냉전의 역사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갈등의 주 당사자 외에도 유럽과 소위 제3세계의 수많은 주조연들이 여기에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 영향 받았다는 점을 『캠브리지 냉전사』는 공통적으로 강조하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편집자들은 냉전 위기의 당사자들이었던 독일, 한반도, 쿠바, 그리고 이집트를 독립적인 장으로 포함시켰으며, 일반적으로 유럽 내 냉전의 중심국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지중해 국가들의 냉전사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였다. 더불어 중국, 일본,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중동에서의 냉전의 전개도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었으며, 아프리카도 역시 제3세계와 냉전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에서 주요하게 취급되

---

1)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었다. 이런 편집자들의 의도를 가장 명확히 반영했던 예는 아마도 피에로 글레이헤세스(Piero Gleijeses)의 논문일 것이다. 그는 쿠바가 1970년대 아프리카 혁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종래 냉전시대 위기의 공간으로서 수동적으로만 묘사되었던 쿠바를 냉전 시대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재현하였다.

하지만 냉전을 “가장자리”로부터 접근하면서 『캠브리지 냉전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했던 점은 유럽, 특히 서유럽이 냉전의 전개와 종식에 끼쳤던 영향이었다. 기존의 냉전 연구에서 유럽은 냉전의 직접적인 무대가 되었던 독일을 제외하고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이는 서유럽과 동유럽이 각기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들의 정책적 노선에 따라가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했을 뿐이라는 가정 때문이었다. 이런 가정에 반대하며, 본서는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기노프-헤흐트의 논문은 종래 전후의 서유럽 문화를 미국화(Americanization 또는 Coca-colonization)라는 틀로 시각을 비판하고, 오히려 미국의 대중문화가 서유럽 문화에 불러일으킨 반감을 강조하였다. 이같이 유럽을 냉전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던 시각을 넘어서, 몇몇 저자들은 유럽이 냉전의 진화와 종식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까지 주장한다. 유시 한히매키(Jussi M. Hanhimäki)는 미국과 소련식의 데탕트가 아닌, 유럽 내부에 고유의 데탕트 안, 즉 서독 중심의 유럽 데탕트 안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바로 이 유럽식 데탕트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서둘러 1970년대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데탕트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존 영(John W. Young)은 서유럽 국가들이 1980년대 이후 회복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소간의 냉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던 모습을 추적하면서, 한편으로 서유럽이 전후 이래로 이루어낸 정치적·경제적 성과가 결국 동유럽 국가들을 서유럽식 모델로 끌리게 하는 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냉전 종식에 유럽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로 서유럽 학자들이 강조했듯이, 중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첸지안은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실용주의적 개혁이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 종식에 중요하게 기여했다는 논지를 펼쳤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첸지안의 논문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캠브리지 냉전사』는 냉전의 “가장자리” 중 유럽의 역할만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한, 글레이헤제스의 논문을 제외하고, 본서의 논문들에서 제3세계는 여전히 그들 자신의 역할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 정책의 공간이라는 틀로서 서술되었다. 마이클 라탐(Michael E. Latham)의 제3세계 논문은 이런 접근법의 가장 두드러진 예일 것이다. 그에게 아프리카는 여전히 미국과 소련을 위한 무대이자 각축장일 뿐이었다. 사실, 유럽의 능동성은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제3세계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국가들은 여전히 수동적으로 묘사되었던 데에는 『캠브리지 냉전사』 편집자들의 논문 필자 선정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서유럽 학계에 소속된 학자들은 다수가 초대받았던 것에 비해, 동유럽과 아시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은 매우 소수만이 선택되었다. 한반도에 관련된 사실상 유일한 챕터였던 한국전쟁도 미국의 역사가 윌리엄 스투크(William Stueck)이 맡았다는 점도 이런 필자 선정의 편향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편향성은 현재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역사 및 사회과학 학계의 지평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냉전의 세계사를 추구하고, 나아가 냉전을 “가장자리”로부터 고찰하려 했던 『캠브리지 냉전사』 편집자들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이와 아울러, 본서에서 냉전의 “가장자리”에서도 주목받아야 할 몇몇 국가들이 사실상 독립된 챕터에서 빠지거나 또는 부당하게 홀대를 받은 경우도 발견된다. 중국과 함께 제3세계 운동을 시작했던 인도를 개별적

으로 다룬 논문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이스라엘 역시 초기 냉전시대부터 국제관계에서 줄곧 중요한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생략에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 초기 냉전시기와 1980년대는 독자적인 장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니, 정작 중국이 냉전 시기에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1950년대 중엽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단지 중소관계라는 틀 속에서만 서술되는 불균형을 보여주었다. 냉전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 한반도와 대만 역시,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필자 선정의 편향성 및 지역적인 불균형과 더불어, 주제 배분상 문제도 냉전의 “가장자리” 강조라는 편집자들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았다.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련의 냉전 연구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던 문화, 과학기술, 지식과 같은 주제들은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다룰 때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다시 말해, 이들 지역들의 냉전사는 철저히 전통적인 외교사적 연구방식에 따라 재현되었을 뿐이다. 『캠브리지 냉전사』에는 제1세계와 소련을 제외한 지역들의 냉전 시기 문화와 일상 등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 V.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캠브리지 냉전사』가 기존의 전통적인 냉전 연구와는 구분되는 연구 성과들의 반영이자 요약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냉전시대 역사를 외교사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연구하고 나아가 냉전의 “가장자리”에 주목하는 경향 자체는 앞으로 분명 생산적인 학문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판의 『캠브리지 냉전사』가 위와 같은 임무를 온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사실, 이는 아직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냉전사 연구에게 너무 큰 기대라고도 할 수 있겠다.

향후 시간이 흘러, 냉전사 연구가 더욱 성숙해진 이후에 출판될 냉전사의 종합은 아마도 위의 단점이 극복된 보다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미래의 저작은 현재 『캠브리지 냉전사』처럼 각국사의 집합과 그들 간의 외교 관계사로서 기획되는 것이 아니라, 냉전이라는 틀 아래 각 지역과 분야별 다양성이 통합적으로 서술되는 진정한 국제사(international history)로 표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 노경덕 .....

미국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소련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Rethinking the Varga Controversy, 1941~1953”, *Europe-Asia Studies*, Vol. 63, No. 5 (2011)와 “스탈린 시대 소련공산당과 학계 관계 재고”, 『서양사론』 110권 (2011)이 있다.